

광주 '생명나눔상' 첫 수상자 박종민씨

“헌혈하면 할수록 마음 깨끗”

1년간 혈소판 헌혈 8회

광주에서 처음으로 '생명나눔상' 수상자가 탄생했다.

회제의 주인공은 광주북구자원봉사센터 박종민(39) 소장. 이 상은 생명나눔 광주전남실천본부(본부장 현지 스톱·이하 광주전남 생명나눔)가 한해동안 헌혈 5회 이상 참가한 봉사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광주전남 생명나눔 설립 8년만에 처음이다.

광주전남 생명나눔은 12월 14일 KBC 컨벤션홀에서 '생명나눔회원과

함께 하는 어울림 마당'을 열고 박 소장에게 상장과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상을 수상한 박 소장은 수상 소감에서 "1시간가량 헌혈을 하고 있으면 불편하고 어둡던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낀다"며 "헌혈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편안하고 행복해 진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3년 전부터 혈소판 헌혈 봉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8회에 걸쳐 혈소판 헌혈을 했다.

광주전남 생명나눔 본부장 현지 스톱은 "혈소판 헌혈 봉사자는 24시간 대기해야하며, 화순 전남대병원까지 직접

가서 검사와 헌혈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영웅'이다"고 소개했다.

한편 한해를 마무리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음악가 유상호, 주권기 씨 등 모금활동에 앞장서온 봉사자와 후원회원들이 공로패와 봉사상을 받았다. 또한 지난 1년동안 영화 관람객을 대상으로 헌혈증서 5000여장, 나눔되지 동 200개 등을 모아 백혈병 환우에게 전달한 톨플러스 시네마 김덕일 관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광주=이준엽기자**

전통불교영산회 법인출범 기념

광주시민초청 영산작법 시연

전통불교영산회(회장 해령)는 12월 11일 광주 시민회관에서 창립 13주년 및 법인출범 기념 축하공연을 개최했다.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작법 시연으로 펼쳐진 이날 공연에는 대흥사 조실 천은 스님, 태고종 광주전남 총무원장 금명 스님 등 각 사암 스님과 박광태 광주시장, 강박원 광주시의장 등 지역 기관장, 시민, 불자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공연에 앞서 영산회장 해령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예향 광주에서 우리문화의 근

간이 되는 불교전통의식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불교의식을 보존 전승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광태 광주 시장도 축사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인 광주에서 불교전통 의식인 영산작법이 스님들에 의해 계승발전 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며 "불교 전통의식을 통해 부처님의 밝고 지혜로운 진리를 중생들에게 전하며, 독창적인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 영산회원 40여명이 출연해 복창계, 천수바라, 다계작법 등 영산작법을 시연했다.

이준엽기자



캄보디아에 우물 35개 설치

대구 정법회거사팀

대구 정법회거사팀(회장 남두희)은 최근 캄보디아 현지마을에 1150여만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우물 35개를 설치하고, 의류 2370여점과, 학용품 1200여점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정법회 거사팀 남두희 회장은 "지난 3월부터 거사팀 산악회(회장 전광웅)의 주관으로 이석해 부회장을 단장으로 황보규 대 부회장을 간사장으로 하는 국제봉사활동 준비기획단을 출범시켜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준비기획단은 캄보디아 시엠펙 공항에서 동북 방향으로 반데스레이를 지난 35km지점의 푸윤칸 프롬 마을 426가구 2278명의 주민들에게 우물 20개를, 그 옆 마을인 돌 그로랑 마을 3187가구 1670명에게 15개의 우물을 설치하는 국제구호활동을 펼쳤다.

우물 공사는 지난 10월 착공해 중간검사와 수질 분석을 거쳐 11월 27일 정법회 거사팀 해외봉사단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배지선 기자

천태차문화회 1000명 참가

학술대회·현대작법시연 성황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가 주최하고 천태종 총무원 교육부가 주관하는 제4회 천태차문화대회가 12월 8일 대구 대성사주지도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부 법요식, 2부 천태차문화학술대회, 3부 육법공양 및 현대 작법 시연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장 춘광 스님을 비롯한 천태종 전국 18개 사찰의 다도회 회원과 차인 등 10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배지선 기자

어르신 2000명 오색떡국 공양

미륵사 선재원, 새해엔 월 2회 봉사

광주 미륵사 선재원(원장 해법)은 12월 11일 광주공원에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오색떡국으로 대중공양을 올렸다.

연말을 맞아 마련된 이날 대중공양에는 다섯 가지 색의 떡으로 끓인 떡국 2000인분과 김밥, 초밥 등 다양한 음식이 선보였다. 4년 전부터 봄, 가을마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을 직접 찾아 떡국공양을 하고 있는 선재원장 해법 스님은 "효도를 행하는 것은 곧 불법을 실천하는 것이다"며 "새해에는 매달 2회씩 노인정과 사회복지관을 찾아 음식공양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어르신을 위한 떡국 공양에는 미륵사 신도와 선재원 후원회원 100여명이 자원봉사했다.

이준엽기자

대구불교합창단 6대 회장

지원정사 김태영씨 선출

대구불교합창단 연합회는 12월 13일 대구불교회관에서 총회를 갖고 지원정사 비둘기합창단 김태영(62·사진) 회장을 제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태영 회장은 1981년 은지사 불비니합창단 창립회원으로 활동했으며 96년 이후 지원정사 비둘기합창단을 이끌며 전국환경행사의 홍보도우미로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왔다. 김 지원정사는 "내년 임기동안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사회적봉사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소년소녀가장 돕기 자비 탁발

영덕사암련, 첫 대외활동... 130만원 모금

12월 9일 오후 2시, 영덕 강구시장에 열릴 소리와 함께 지역 스님들의 탁발행렬이 나타났다. 영덕불교사암연합회(회장 덕명)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을 짓게 하기위해 매일 일곱 집을 탁발하

이날 행사는 지난해 출범한 영덕불교사암연합회가 처음 갖는 대외 활동이어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교세가 약한 편이지만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사암연합회조차 결성되지 못했던 지역이어서 그 영향이 큰 듯 보였다.

그래도 영덕불교사암연합회의 첫 대외활동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의아하게만 생각했던 지역민들도 탁발의미를 생각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뻐했고, 자비탁발행렬에 따라나선 불자들도 용기와 신심이 고조됐다.



영덕불교사암연합회는 12월 9일 소년소녀가장돕기 탁발에 나섰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공식적으로 나선 소년소녀가장돕기 탁발행렬에는 보문사 덕흥사 영명사 등 영덕군 10여개 사찰 스님과 신도 30여명이 동참했다. 오전 10시 서남사에서 고불식을 가진 후 시작된 탁발행렬은 12시까지 영덕

9일과 10일 이틀간의 모금액은 모두 130여 만원. 노력에 비해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탓도 있었지만 영덕지역의 불교세가 그만큼 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바닷가 지역은 주민들이 기복적 타력 신앙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아 불

해동사 신도회 총무 김미숙(39) 불자는 "처음에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지만 활동하면서 자신감도 갖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영덕사암연합회장 덕명 스님은 "첫 활동이라 미흡한 점이 많고, 모금액도 예상외로 적었지만 지역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는 첫 걸음이었다는데 큰 뜻을 두겠다"며 "이 활동을 계기로 지역불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덕불교사암연합회는 동지 때 쌀을 더 모아 탁발 모금액과 함께 영덕군청을 통해 지역의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어린이 동안거 단기출가 시행

김천 직지사, 내년 1월 8~13일

김천 직지사가 제3회 어린이 동안거 단기출가를 1월 8일부터 1월 13일까지 초등

어린이들은 5박6일간 직지사서 생활하면 선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예불에 참석하

고, 발우공양과 도량청소 등을 하면서 바른 생활습관을 익히게 된다. 또, 매일 오전에는 <한글 108 대참회문> <부모은중경> 읽기, 참선 및 요가를 하고, 저녁에는 <반야심경> <부모은중경>, 부처님발씀을 사경하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고 한문을 배우게 된다. 다도 및 예절교육, 레크레이션, 암자순례, 장작불 고구마 굽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접수마감은 12월 28일. 회비는 12만원이다. (054)436-6174

성명서

현대불교신문 폐간 결정을 철회하라

한마음선원의 12월 3일 현대불교신문 폐간 결의에 대해 한국불교기자협회는 경의를 금치 못하며 폐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대불교신문은 한마음선원 대흥 스님의 포교 원력에 의해 창간됐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더불어 불교계 언론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도 공헌한 바가 크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이 축적해 놓은 수많은 자료는 불교의 공공자산이자, 불자들의 자양분이기도 하다. 폐간으로 인해 이 소중한 자산이 문헌한다는 것은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폐간은 곧 법인해체를 의미하며, 그것은 현대불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송두리째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사상시킴겠다는 폐간은 불교 언론은 물론 불교계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결정이다. 더욱이 현대불교신문 폐간은 불교계 전체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경영부실로 인한 한마음선원의 부담은 이해하지 못 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현대불교신문사 직원들은 110여명이었던 직원 수를 40여 명으로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감수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었기에 폐간 결정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또한 다른 운영주체를 모색할 여지마저 차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지기도 어렵다.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이런 방법이 부처님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욱이 폐간을 통고하면서 3주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것은 현대불교신문사 직원들의 생존권을 신대하게 위협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한국불교기자협회는 우려를 넘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따라서 한국불교기자협회는 한마음선원이 더 이상 현대불교신문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주체가 신문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폐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불기 2550년 12월 14일

한국 불교 기자 협회

(관음불교신문, 금강불교신문, 만불신문, 밀교신문, 법보신문, 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한국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월간 불교와문화, 월간 불광, 월간 여성불교, 불교TV)